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4)

장준하 선생을 흠모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진관 스님은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다. 농성이 있어도 저녁이 되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가정이 없는 진관 스님은 현장을 지켰다. 한 두 번이 아니다. 항상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기자들을 만난다. 인터뷰도 많이 했다. 진관 스님이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했던 이유이다. 민주화가 진척된 이 시대에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암울했던 시절, 중생들의 안위를 위해 고된 길을 걸었던 진관 스님의 기억을 통해 당시로 돌아가 본다.

"나도 법정 스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상계〉도 읽고 어 또 정치하는데 참여도 하고 이제 요렇게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1968년 그 장준하 선생 강연 신민당 〈민주전선〉을 읽고 (장준하 선생의) 〈사상계〉를 읽으면서 인제 방향을 회전하게 되는 거죠."

진관 스님의 목표는 시인이 해야 할 일에 맞추어져 있다.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시인이라고 단정한 진관 스님은 선학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정치 행사를 그냥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촌 봉원사를 찾아 염불을 배우려 했다. 나지명 스님과 함께 갔다.

"(불교) 정화에 인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러기에 그 때 '인제 뭣허러 왔느냐' '염불 범패 그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둘은 안 된다.' 만일에 거기서 범패를 받아줬더라면 지금쯤은 범패의 전수자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거그서 안 받아주는 바람에 염불을 접게 됐던 거죠."

비구승이라서 염불학원에 퇴짜를 맞았다. 이후 자신이 좋아하던 염불과 인연이 멀어졌다. 멀어졌다기보다 정치 현실에 뛰어드는 일이 잦았다. 야당 인사들의 연설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참석하였다. 연설을 듣고 있던 지관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 아는 것이 없었다. 아니 옆을 바라보니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꿈틀거렸다.

"스무살이니까 어디에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아는 것이 있어야 참여를 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인제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고 때에 인제 뭘 했냐면은 이 전국에 인제 불교 학교가 있는가 없는 간데 요걸 생각을 했죠. 스무살 때 아무리 봐도 학교를 가야지. 전부 거긴 대학생들만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 내가 대학을 못 나와 가지고 저 아이들 허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냐 그럼 대학을 가야되겠는데 어허허 이거 어떻게 허허허허 그래서 고 때 학원에 갔지 학원에. 검정고시 학원에 고 때 검정고시학원에 같이 간 같이 다녔던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누구냐 나하고 인제 여기 한국일보사에 한국학원이라고 있었어요… 1968년 1969년 인제 요렇게 됐는데…."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목표를 세웠지만 늦깎이 공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승가에서 유행하던 태권도를 배웠다. 정치든 뭐든 그만두고 태권도 도장이나 차려야겠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태권도를 했다. 학원을 그만두고 2년간 도장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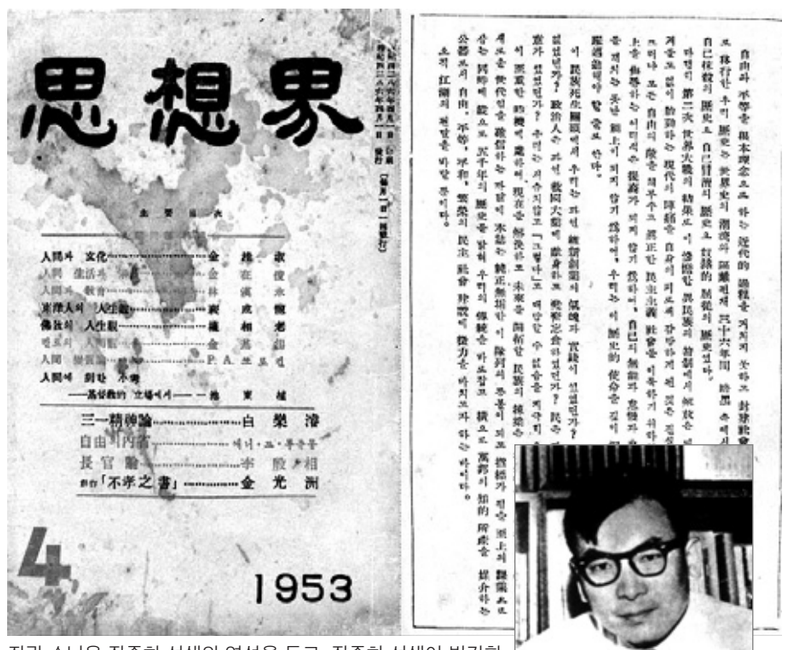
야당인사 연설에는 어김없이 참석
'사상계' 탐독하면서 대학에 진학

"조계사 앞에 있는 교회 터가 태권도 도장이야. 그래서 아 내가 그럼 태권도 선수가 한 번 돼야 되겠다. 선방에서 그 그 날라다니는 기술 요거 이걸 익혀가지고 그러믄 선 그 선 예술 선 선무도 선무도가 그게 또 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인제 이 년간을 고걸 했죠 내가. 태권도 도장에 그래서 그 때 학원을 때려 치고 허허."

그러나 야당 인사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사상계〉나 〈민주전선〉의 잡지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승복을 입고 연설회장에 갔다. 승복을 입고 온 진관 스님을 본 사람들은 법정 스님이라고 웅성거렸다. 매체가 발달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승려로서 야당 행사에 나타난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진관 스님을 법정 스님으로 오해한 일이 많았다.

"내가 인제 거기 딱 승복 입고 가니까 대학생들이 먼저 얘기 하는 것처럼 어 저기 법정 스님이 왔다. 법정 스님 요렇게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서 실은 뭐 내가 법정이 아니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야 저 어 법정 스님이 저렇게 학생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 이것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부러워서 인제 장준하 선생이 집회를 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거기에 인제 가게 돼 자주 가게 되고."

흠모하던 법정 스님이었으나 자신을 법정 스님으로 오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싫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법정 스님의 등급까지 올라가 있다는 점을 착각하기도 한다. 진관 스님은 태권도 사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다시 펜을 잡고 시를 썼다. 기어코 〈불교신문〉에 자신의 시를 실었다.



진관 스님은 장준하 선생의 연설을 듣고, 장준하 선생이 발간한 〈사상계〉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장준하 선생이 쓴 권두언이든 기사든 모두 읽었다. 사진은 〈사상계〉표지와 창간인 장준하(1918~1975)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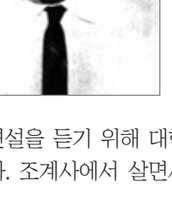
"아 나도 시 한편을 〈불교신문〉에다 한 번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어느 기잔가 누군가가 왔걸래 나도 시 썼으니까 신문사에 실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시를 인제 한편을 실렸어요."

"〈사상계〉 찾아가가지고 내 시 실어 달라. 요렇게 하니까 〈사상계〉에서 응모하라 응모해야지 기양 실어주는 게 아니다 아주 호령을 해서, 자존심만 상하고 인제 요런 과정이 인제 선학원에서 얽히면서 장준하 선생을 동경하게 되고 장준하 선생이 권두언을 썼는데 장준하 선생이 또 옛날에 김구 선생하고 그 중국을 막 돌아다녔던 고런 게 인제 그 꿈에 우리가 부풀었죠. 그래서 아 대학생이 됨으로써 장준하 선생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요걸 그 때 절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장준하 선생의 연설을 듣고, 장준하 선생이 발간한 〈사상계〉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장준하 선생이 쓴 권두언이든 기사든 모두 읽었다. 장준하 선생이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사회운동가, 잡지발행인임을 알았던 터이다. 적극적으로 정치문제와 사회 문제에 뛰어든 모습을 존경했다. 장준하 선생의 연설을 듣기 위해 대학을 지원한 셈이 된다. 조계사에서 살면서 공부할 요량이었다.

"조계사에 인제 방부를 들였는데 그 조계사에서 살면서 인제 그 학원에 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에~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저 대학을 가야 되것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저 학생들과 내가 이 지금 말하면 소통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꿈이 한 가지 무엇이냐 꿈을 다 가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학원에서 이루지 못했던 걸 조계사에서 방부를 들였으니까."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했다. 다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스스로 학업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장준하 선생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었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공부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또한 장준하 선생이 연설하는 그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이 부러운 것은 당연했다. 서울에 오면서 공부하려는 희망이 있었지만, 정치 현실을 가까이서 본 진관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검정고시를 목표로 했고, 기어코 고교 과정을 끝낸다.



동국대 불교대학 외래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시성(詩聖) 사이교(西行) (上)

정토를 희구했던 풍류가

사이교 초상, 시즈오카현 MOA미술관 소장

고대 말 토바(鳥羽) 천왕이 아들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있을 때, 상왕의 처소인 원(院)의 북문을 지키는 무사 가운데 사토 노리키요(佐藤憲清)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왕을 호위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의장 역할을 했다. 풍류가로 알려진 노리키요는 황실 주최로 열리는 시가(詩歌)를 읊는 연회나 활쏘기 등의 연회에는 꼭 초대됐다. 그런데 그는 일찍부터 불도에 뜻을 두고 출가하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노리키요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이 출가를 생각하던 친척 노리야스(憲康)가 급사했던 것이다. 죽기 전날, 노리야스는 노리키요에게 "이 세상은 꿈처럼 무상하기 때문에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노리키요는 결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 저녁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언제나처럼 4살짜리 딸이 다리에 달라붙었다. 그는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지금까지 출가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식 때문이다. 딸년이야말로 방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발로 차버렸다. 딸은 물론 집안의 사람들 모두 놀라서 울었다. 단지 처만은 남편의 출가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그 후, 노리키요는 굳게 결심한 대로 힘껏 자신의 상투 밑동을 잘랐다. 자른 머리카락을 부처님을 모신 지불당(持佛堂)에 던져버리고 집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대로 서산(西山)의 승려 문하에 들어가 출가했다. 사이교(西行)라는 불명을 받았다. 그는 속진을 벗어나 불도에 들어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초암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고 자유자재
둔세의 삶 일관, 2090수 시 지어

이 이야기는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사이교(1118~1190)의 전기를 그린 것으로 13세기 중반에 나온 〈사이교 이야기(西行物語)〉 전4권 가운데의 일부분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심금을 울린다.

사이교는 고대 말에서 중세 초에 걸쳐 활동한 승려이자 가인(歌人)이다. 무가의 자제로 태어나 실제로 왕실의 호위병으로 관직에 올랐다. 그러던 중 갑자기 1140년 22세에 출가했다. 출가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 말고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쟁에 대한 실망 또는 궁중 여인과의 실연 등 여러 설이 있다. 원래의 불명은 엔이(圓位)였지만 후에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사이교로 고쳤다. 그만큼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기쁘게 구하는 '염리예토 흔구정토(厭離穢土 欣求淨土)' 의 생각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이교는 평생을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고,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둔세의 삶을 일관하면서도 전국을 돌며 2090수의 시를 지었다. 그 가운데 265수가 왕명에 의해 편찬된 시가집인 칙찬집(勅撰集)에 입선됐다. 그의 가집에는 〈산가집(山家集)〉,〈문서집(聞書集)〉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앞의 〈사이교 이야기〉 처럼 그의 전설을 담은 이야기책들이 나왔다.

출가 후 지은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언제 긴 잠의 꿈에서 깨어 놀라울 것도 없게 될까나." 놀라울 것도 없다는 것은 만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심지를 말한다. 즉, 무명의 미몽에서 깨어 언제나 불도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읊은 것이다. "세상을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마음,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몸이여."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했음에도 지난날 추억이 서린 서울에 대한 번뇌망상이 내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집착을 버렸음에도 주변의 벚꽃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시들을 읊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경기도 포천 금룡사 자연산 된장
신토불이 우리 된장 맛보실래요?
경기도 포천군 금주산 금용사에서 약수물로 담근
우리 전통된장을 불자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된장은 700m 고지에 있는
바위틈에서 나온 약수물로 간장을 빼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맛좋은 된장입니다.
맑은 공기와 오염이 전혀 없는 자연 속의 햇빛으로
빚어진 전통 재래식 된장을 멀리까지 오시지 않고
택배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로 된장은 10~20년 동안 숙성된 된장입니다.
된장 1Kg 1만원 (택배비 별도)
국민은행 034-01-0005-134 예금주 임성환
문의 전화 010-5261-4405/031)533-4405

화제의 신간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各各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子平眞詮 精解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음 심효첨 원저 / 신국판 / 744쪽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